

日本の消費地精製主義의 展望

산유국들의 수출 정유공장 가동시기가 임박함으로서 오랫동안 消費地精製主義를 석유정책의 기본으로 고수해 온 소비국들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소비지정제주의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원유정제와 제품수입을 적시에 유동성 있게 조화시켜 소비지정제의 유리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는 日本에서 발행되는 旬刊「石油政策」誌 84년 5월 5일 호에 게재된 “소비지정제방식과 안정공급”을 전문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註)

1. 금후의 石油政策

83년 7월 日本 통산성 資源에너지庁이 파견한 歐美 석유산업조사단은 歐美 각국의 석유산업이 어려운 정세하에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日本의 石油産業은 구태의연한 자세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하며, 石油審議會 석유부회 소위원회에서는 이미 형식화 돼버린 石油業法등은 석유산업의 재편등 구조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며 조속히 철폐해야 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또 석유제품 무역의 확대에 대해 『외국에서는 消費地精製主義에서 제품수입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확실히 이 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산업체제가 이미 재구축된 歐美 각국의 사정에 비하면, 日本의 석유산업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석유산업이 처해 있는 역사적·사회적 상황, 그중에서도 石油業

法에 의해 구축된 산업체제하에서는 歐美 각국처럼 대응하기 어려운 많은 상이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歐美 각국에서는 생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정유공장에서 주유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하류부문에 대해 철저한 감량화, 집중화, 효율화가 추진돼 왔다. 이미 각국에서는 메이저가 석유산업의 핵심적인 존재로서 산업부문을 집약화하고, 석유산업의 골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石油産業의 재편 집약화는 필요치 않다. 그러한 체제하에서 정유공장 단위로 폐쇄등이 이루어져 과잉 정제능력은 일단 해소되었다. 2차 설비능력이 급속히 증강되어 정제시설의 구조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져 일면에서는 유럽 전체로 다소 과대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유소의 대형화와 자급식화가 이루어져 주유소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구제국에서는 수입원유 내지는 국산원유를 국내에서 정제하여 판매하는 소비지 정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2차설비능력의 확대로 그 원료용 重油(상압잔사

유)를 수입함으로써 제품수입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국내경제와 제품수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정제업의 수익성을 높여려고 있다.

精製能力的 감축

한편, 日本에서도 작년 9월말까지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삭감하여 일단 목표는 달성했다. 또, 판매회사의 집약화문제도 마루젠·다이코 양사의 정제부문 통합을 계기로 순식간에 판매제휴를 주축으로한 5개 그룹화가 구체화 되었다. 석유부회 소위원회가 판매회사의 집약화를 발표한 지 4년이나 지난 지금 불과 1-2개월 사이에 5개 그룹화가 구체화 되었다는데 소위원회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제능력 삭감 목표가 합리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정제능력 하루 497만 배럴은 중·장기적으로 적정가동률을 고려해도 여전히 하루 100만배럴 정도가 과잉이기 때문에 삭감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다. 또, 판매회사의 집약화가 5개 그룹화 되는 것이 石油産業내부의 체질강화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또 집약화는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인지 현 단계에서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과잉능력의 삭감과 판매회사의 집약화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日本의 석유산업이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또는 석유기업의 체질강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있다. 그 진행과정에서 어떤 석유정책이 전개될 것인지 그중에서도 소비지정제 방식에 대해 어떤 정책과 방향이 제시될 것인지 그리고 현행 석유업법체제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 것인지, 모두가 금후의 석유정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지 정제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한다.

2. 消費地精製와 제품무역

석유제품무역의 확대에 따라 고전적인 消費地精製主義는 서서히 변형되고 있다. 확실히 西歐제국에서의 제품수입비율은 석유파동 이후 매우 높아졌다. 英國의 B.P社 통계표는 석유파동 이후의 석유무역의 추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전세계의 석유소비량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로 석유무역량(원유와 제품)은 약 25%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 무역량 감소의 대부분(98%)이 原油수입의 감소에 의한 것이며, 제품의 국제무역이 활발해진 것은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며, 선진공업국의 소비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 석유소비량에 대한 제품수입량의 비율은 약 10% 미만이며, 같은 기간중에는 오히려 다소 감소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西歐지역만이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현저하게 제품무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美國의 제품수입량은 같은 기간중에 약 절반이 감소하고, 또 日本의 수입량도 약 3분의 1이 감소한데 비해, 西歐의 수입량은 2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세계의 석유무역 패턴중에서 西歐만이 특수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石油貿易의 추이

(단위: 천b/d)

	수입 원유	수입 제품(A)	합계	소비량(B)	A/B (%)
전세계	1973 28,460	5,670	34,130	57,045	9.9
합계	1982 20,095	5,470	25,565	58,510	9.4
西歐	1973 14,570	740	15,310	15,155	4.9
	1982 7,715	1,635	9,350	12,455	13.1
美國	1973 3,245	2,960	6,205	16,815	17.6
	1982 3,460	1,580	5,040	14,905	10.6
日本	1973 5,000	760	5,760	5,460	13.9
	1982 3,645	510	4,155	4,380	11.6

註: 전세계 합계는 공산권을 포함.

〈資料〉 B.P 통계.

西歐 주요국의 석유수급은 일찍부터 각국별로는 과부족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지역의 수입만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EC 지역내에서 공동관세제하에 제품유통이 자유화되어 있어, 이른바 서구제국은 하나의 광역시장으로서 각국간의 제품상호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지에 위치한 로테르담은 일찍부터 이 지역내의 제품과잉국과 부족국간의 중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또 세계석유제품무역의 거래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西歐의 석유시장은 가장 국제적인 메커니즘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西歐에서의

제품무역, 지역내의 제품상호 무역이 오래전부터 서구석유산업의 특징중의 하나로서 여겨져 온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따라서 西歐제국에서의 제품수입 그 자체는 특별히 불가사의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 급격히 수입비율이 높아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精製施設の 고도화

西歐주요국에서는 이미 가능한 한 최소규모까지 정제시설을 삭감하는 한편, 나머지 정제시설의 구조는 수요의 증·경질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해설비능력을 증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고도화되었다(이미 일부에서는 2차설비능력의 파잉경제론조차 나오고 있다). 각 석유기업은 2차설비를 100% 가동함으로써 정유공장의 효율적인 조업과 수익의 확보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원유처리량을 줄여서라도 분해용 원료로서 스파트 제품시장으로부터 스스로 값싼 重油(상압잔사유)를 수입하는 예가 많다(西獨의 경우). 이것이 최근의 西歐 제품수입비율을 급증시킨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각사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견지에서 국내정제와 제품수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유시설의 구조가 매우 고도화 되었기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전후 마살플랜에 의해 부활된 이후 西歐 석유산업이 메이저를 중심으로 하여 완전히 구축돼온 그 전통적인 체제와 西歐의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석유산업에 대해 자유시장정책하에 각 기업의 자주적, 자율적대응에 맡겨 온 각국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것들이 심각한 국제석유 정세속에서 消費地精製主義의 기본정책을 바꾸지 않고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 당초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후 日本의 석유산업도 消費地精製主義를 기본으로 하여 재출발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1951년 4월, 경제안정본부가 석유통제권한 위양에 따른 조치를 발표하면서 『수입은 외화자금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유수입 우선주의를 취하고, 석유제품의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예를 들면 특수 운활유), 또는 국내생산으로는 정제수율이나 정제업자의 채산성면에서 부족한 것(예를 들면 重油)으로 한정한다』고 한 것이 일본 消費地

精製主義의 기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외화할당제나 石油業法의 통제하에서는 원유수입=국내정제라고 하는 단순한 현상적인 형태로 밖에 이해되지 않았다. 소비지정제를 성립시킨 경제적인 조건, 국제적 석유산업의 메커니즘 중에 관철되어 있는 가격의 논리가 전혀 이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가? 본래 제품수입에 비해 원유수입·국내정제 쪽이 경제적이라는 원칙에 의거 한 정제방식이 消費地精製主義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소비지에서 제품을 전량 정제자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파잉설비 문제

정제업이 진정한 소비지 정제주의를 관철하고, 국내제품가격이 국제가격구조에 따라 형성된다면 제품의 수입이 있어도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또는 특수한 제품, 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경우, 생산구조와 수요구조가 불균형이 생겨 당연히 부족한 제품이 있는 경우와 같이, 절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정제업자체에 어떤 불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전후의 석유산업 발전기 10년간에 걸쳐 외화할당제하에 重油베이스의 수요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극히 정책적, 편의적으로 운영된 결과 消費地精製主義는 크게 변용되어 버렸다. 그것은 消費地精製主義로의 換骨奪胎 밖에 되지 않았다. 외화할당제하에서 정유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이른바 순판매업자는 잇달아 정제업자로 전환하고 다투어 정유공장을 신설하였다. 제품수입은 사실상 「원칙금지」이며, 마침내 100% 국내자급체제가 갖추어졌다.

한편, 重油(B-C油) 가격은 석탄대책상 비교적 비싸게 책정되었다. 파잉설비하에서 오히려 휘발유가 상대적으로 값싸고 重油가 비싸져 제품가격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급격히 파괴되어 소비지정제의 수익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石油業法 하에서의 소비지자급주의의 전형적인 형태가 Kombinat Refinery의 출현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나프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나프타와 B-C油의 대량소비자인 석유화학, 전력, 철강업체 등이 공동투자자로 발족한 것이었으나, 그 자체가 자가정유공장적 성격이 강하고, 비경제적 생

산체제의 모순등, 당초부터 의문점이 많았으나, 거의 모두가 우선적으로 허가된 것이었다. 오늘에 와서는 일변하여 석유파동 이후 유화업계의 소원이었던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수입자유화가 사실상 인정되어 국내자급주의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나프타문제가 과연 해결되었는지 의문이다.

전후의 세계적인 추세로서 消費地精製主義를 똑같이 기본으로 하면서도 日本과 西歐에서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가? 단지 소비지정제주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

3. 消費地精製主義의 장래

세계의 석유제품무역이 현재 반드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나, 中東이나 北아프리카 산유국의 수출정유공장 건설계획이 대규모인 것인 만큼 그들 정유공장 건설계획이 완성·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3~4년 동안에 석유제품 무역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대량의 수출제품이 日本이나 서구의 소비시장에 쇄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압력에 견딜 수 있을지, 앞으로 우려되는 점이 많다. 과연 산유국의 수출 정유공장의 제품이 세계 석유시장에 어느 정도 수입압력을 가해올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최근의 원유시장 부진으로 각 산유국은 수입원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정유공장 건설계획이 예상대로 실현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단순한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수출가능량은 대단한 수량이 될 것 같다. 일례로서 런던의 Trichem사의 추산으로는 中東 및 북아프리카의 주요 산유 11개국의 수출정유공장의 수출 가능량은 1980년에 연료유 합계 약 3천930만톤(나프타와 B-C油가 85%)이었으나, 1990년에는 약 6천5백만톤으로 증가한다. 이 중 약 절반이 灯油, 輕油 등 중간유분이 차지하고 B-C油는 1980년에 비해 대략 반감한다. 쿠웨이트는 일찌기 대량의 重油 수출국이었으나, 1990년에는 반대로 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다(PIW지, 1983년 10월 17일호). 수출제품의 경질화에 대한 구성변화가 확대돼가는

추세에 따라 제품에 따라서는 반대로 순수입국으로 전락하는 산유국도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소비지정제주의의 문제점

최대의 문제점은 수출제품의 가격을 산유국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계획대로 산유국의 수출제품이 세계시장에 수출된다면 원유의 실질가격은 수년간 계속 하락, 1배럴당 25달러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것처럼 제품수출을 강행하면 원유가격은 저하한다는 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산유국은 원유수출을 축소시켜서라도 제품가격의 하락을 막으려 할지 의문이다.

의욕적으로 제품수출정책을 강행하면 원유시장과 제품시장은 모두 심한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여하튼 산유국의 수출정유공장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며, 실령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서 그 제품수출이 1개 산유국에만 유리하게 확대될 것인지도 의문점이 있다. 대량의 값싼 수출제품이 일거에 쇄도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절박한 문제는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PETROMIN의 제품수출이 구체화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를 계기로 제품수입자유화의 길이 열릴 것인지?

消費地精製主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나, 현재의 日本 석유산업체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구축되어 왔다. 「원유수입-국내정제」와 「제품수입원칙금지」라고 하는 원칙은 오늘날까지 일관된 石油政策의 기본이며, 이것이 또 안정공급의 기반으로서 견지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의 석유제품무역이 더욱 더 확대될 경향을 보이고 있을 때, 국내에서도 강력한 제품수입자유화가 요청되게 되면 언제까지나 수입원칙 금지의 자세가 허용될 것인가? 석유의 무역마찰 문제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간 자유화로 방향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나프타수입방식과 같이 미봉적인 수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그것으로는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石油政策의 방향전환 필요

정부와 석유업계가 消費地精製主義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최대의 목적은 안정공급의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적어도 지금은 이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런 만큼 이 체제에 수정을 가하거나, 조금이라도 기존체제를 탈피하려는 데 큰 정신적 저항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석유산업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혼란을 미리 예상하여 지레 겁먹고 있다. 새로운 방향전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할 결의가 필요하며, 또 중요한 것이다.

적어도 석유파동 이후 석유정책의 대의명분은 「안정공급」 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 「안정공급」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단지 그 명분 때문에 석유산업의 활동에는 일일이 행정이 개입하고 행정 지도가 선행돼 왔다. 이른바 「안정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석유산업은 완전히 굴레가 씌워졌으며, 또 석유업계는 이에 만족해 왔다면 좀 지나친 표현인가? 제품수입원칙금지 하에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폐쇄적인 제품가격체제를 고수하면서 은밀히 안주하려는 것이 「안정공급」이라는 수단이 아닌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주요産油國의 精油 및 石油化学工場 건설 프로젝트

위 치	소 유	준공시기	비 용	생 산 능 력	주 종 제 품
쿠웨이트 Mina-al-Ahmadi	KPC	1985-86	20억달러	27만Bbl/D (현재 8만B)	석 유 제 품
쿠웨이트 Mina Abdullah	KPC	1986	19억달러	25만Bbl/D (현재 11만B)	"
카 타 르 Umm-Said	카타르	1984	2억1500달러	5만Bbl/D (현재1만2천B)	"
사 우 디 Jubail	Petromin/Shell	1984. 말	20억달러	25만Bbl/D	"
사 우 디 Yanbu	Petromin/Mobil	1984. 7	19억달러	25만Bbl/D	"
U A E Um al-Dalkh	아브다비	1984. 초		2만5천Bbl/D (현재1만5천B)	"
바 레 인	바레인	1985. 말	4억5천만달러	36만5천T/Y 36만5천T/Y	메 타 놀 암 모 니 아
사 우 디 Jubail	SABIC/Shell	1984	28억달러	65만6천T/Y	에 틸 렌
사 우 디 Jubail	SABIC	1985	14억달러	50만T/Y	에 틸 렌
사 우 디 Jubail		1985	10억달러	26만T/Y	폴 리 에 틸 렌
사 우 디 Jubail	SABIC/미쓰비시	1985	16억달러	30만T/Y	고 점 도 에 틸 렌
사 우 디 Yanbu	SABIC/Mobil	1985. 초	20억달러	45만T/Y	폴 리 에 틸 렌
사 우 디 Jubail	SABIC/Celeneese/ Texas Eastern	1984	3억4천만달러	65만T/Y	메 타 놀
사 우 디 Jubail	SABIC/미쓰비시 /ITOH	1984. 초	2억5천6백만 달러	60만T/Y	메 타 놀
U A E Jebel Ali	Dubai	1985	1억1천만달러	5천만F ³ /D	ING

〈資料〉 AP-DJ

세계 석유산업의 대세는 여전히 消費地精製主義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설사 정제시설의 구조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져 2차 설비의 가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제품수입이 확대되었다해도 소비지정제주의가 변형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물며 삭감된 것도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

는 것은 아니다. 消費地精製主義는 소비지에서 정제하는 것이 정유공장 운영에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공급코스트를 낮출 수 있으며, 또한 정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그 조건이다. 이것은 또 석유의 안정공급으로 통하는 기본이기도 하다.

歐美석유산업조사단은 특히 西欧주요국의 석유

산업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경제 주의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歐美 각국에서는 석유회사가 경제합리성의 입장에서 원유정제와 제품수입을 적시에 유동성있게 조화시켜 소비자경제의 유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와 같은 폭에는 日本의 석유회사가 도

저히 흉내낼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으나, 적어도 그러한 방향으로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과감히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석유정책의 일대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 〈雙龍精油, 주간에너지정보, 84. 5. 21〉

□ 海外石油市場動向 □

페르시아灣 危機와 세계 石油市場

45개월째로 접어든 이란-이라크 戰爭은 지난 4월 이후 페르시아灣을 운항하는 유조선에 대한 양국의 공격을 계기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 들었다. 세계 石油市場은 페르시아灣을 통한 原油공급이 중단될 경우, 제3의 석유과동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속에도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現物市場의 原油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5월 28일의 아라비안라이트는 배럴당 28.40달러로서 4월 18일의 28.38달러에 비해 거의 상승이 없고, 브렌트는 각각 배럴당 30.00달러와 29.92달러로서 이 기간중 오히려 8센트가 하락하였다. 다만 보험요율만은 급등을 하여 페르시아灣의 전쟁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로이드社의 보험요율은 5월 29에는 7.5%까지 상승하였고, (평상시에는 0.25%), 화물에 대한 보험요율도 이란 기항 선박에 대해서는 3%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石油市場의 안정세는 계절적인 수요감소 요인과 더불어 세계적인 石油의 추가공급여력과 原油비축등에 영향받고 있다.

지난 1/4분기중 페르시아灣을 통과한 原油량은 하루 평균 8백만 배럴이었으며, 4월 중순에는 7.4백만 배럴이었고, 이번 페르시아灣 사태가 발발한 5월말에는 5백만 b/d 수준까지 떨어졌다. 만일 최악의 사태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된다면, 이 중에서 2.9백만 b/d는 즉시 代替(사우디가 페르시아灣 수출물량을 홍해로 돌리는 1.2백만 b/d를 포함)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는 총 4.8백만 b/d

가 공급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4월 중순 수준의 페르시아灣 원유공급분을 보상하려면 2.6백만 b/d가 추가로 필요하며, 만일 가을까지 페르시아灣을 통한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계절적 수요증가분을 포함하여 총 4.2백만 b/d의 추가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국별 原油소비의 페르시아灣 의존도를 보면, 83년중 日本이 65%, 이탈리아가 41%, 프랑스가 34% 수준이고, 美国은 4%로 나타나고 있다.

국별 原油 비축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美国은 189백만 toe, 日本은 62백만 toe, EEC는 118백만 toe로서, 이를 하루 평균소비량과 비교하면, 美国이 99일, 日本이 111일, EEC가 105일분 소비에 해당하여 모두 기본비축량인 90일분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비축량 대 하루 페르시아灣 수입량의 비를 보면, 美国이 2,589일, EEC가 390일, 日本이 170일에 해당하여, 日本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상태로서 페르시아灣을 통한 原油공급이 중단되고 추동기 原油소비증가로 하루 4.2백만 배럴의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세계적인 현 原油 비축량을 볼 때, 급박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는 세계각국이 위기 발발시 비축량을 효과적으로 방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페르시아灣의 위기가 지속되어 지난 5월중의 양상이 지속되면, 물량수급의 면을 떠나 세계 原油価格は 상당한 폭으로 상승할 소지를 안고 있다. * 〈韓國動力資源研究所, 에너지동향, 1984. 6. 8〉